

『한국개혁신학』 제33호 (2012): 157-96

칼빈과 김용기 장로의 사회봉사활동 비교연구

김병환

(백석대/조직신학 Ph.D)

〈한글초록〉

본 논문은 현재 교회의 질적·양적 성장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한 대안으로서 작성된 것이다. 논문 전개의 방법으로서 먼저, 제네바에서 목회활동을 통해 한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던 칼빈의 사회봉사활동의 훌륭한 점들을 한국 기독교의 현실 속에 적용시켜 보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물론 한국에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사회봉사를 위한 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사회봉사활동과 유사한, 가나안농군학교로 대변되는 김용기 장로의 사회봉사활동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기독교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사회변혁의 한 가지 대안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본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질문들은, 먼저 칼빈은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칼빈은 실제로 사회봉사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구조와 계획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칼빈의 사회개혁사상은 실제로 그 당시의 제네바의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의 현실에서 그와 같은 칼빈의 사상은 한국교회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투고일: 2012.1.12. 수정 투고일: 2012.2.16. 게재확정일: 2012.2.17.

적인 대안의 마련을 위해 지금 한국에서 실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나안농군학교의 활동을 칼빈의 봉사활동과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교회가 사회적 면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한국교회와 기독교공동체를 주축으로 사회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복음을 통한 사회변화와 전체 기독교와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삼고자 한다.

* **주제어:** 김용기, 가나안농군학교, 칼빈, 한국적 대안, 사회봉사 활동, 교회성장.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의 기독교 선교 제 2세기를 맞아서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기독교의 성장이 갈수록 둔화되어가고, 그 수많은 숫자상의 교인들의 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국민들, 심지어는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도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없는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안 마련에 분주한 듯 보인다. 그래서 본 발제자는 한국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한 대안으로서, 제네바에서 목회활동을 통해 한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던 칼빈의 사역 특히 사회봉사활동의 훌륭한 점들을 한국 기독교의 현실 속에 적용시켜 보려고 한다.¹

¹ R. 스토페르, 『남편·아버지·친구·목회자로서의 인간 칼빈』, 박건택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9), 역자의 말. Cf. 김재성, “생애: 칼빈의 전설? 그의 추적자들과 연구과제”, 『최근의 칼빈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6.

본 논문이 목표하는 것은, 칼빈은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칼빈은 실제로 사회봉사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구조와 계획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또한 칼빈의 사회개혁사상은 실제로 그 당시의 제네바의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의 현실에서 그와 같은 칼빈의 사상은 어떤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했다.² 그리고 물론 한국에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사회봉사를 위한 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사회봉사활동과 유사한, 가나안농군학교로 대변되는 김용기 장로의 사회봉사활동을 비교·분석해서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면에서 지향해야 할 사회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인식변화를 통해, 교회들의 바람직한 ‘균형성장’과 복음을 통한 ‘사회변화’를 위한 교회와 기독교공동체를 주축으로 한 대안을 이끌어냄으로서, 전체 기독교와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을 삼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제인 두 인물의 사회봉사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사상적 배경과 실천과정,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실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발제자는 먼저 칼빈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인간’이해와 ‘선행’에 대해 그리고 그 당시 사회 구조, 특히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규명해 볼 것이다. 이어서 칼빈의 사회봉사활동의 실천 과정을 알아보고, 또한 칼빈의 실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가나안농군학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알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칼빈과 김용기 장로 두 사람의 사회봉사활동의 비교·분석이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지금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져야 할

² 김병환, 『사회복지사업 측면에서 본 칼빈연구』 (서울: 도서출판 목양, 2010). 본 책은 현대적 의미의 사회사업의 체계를 칼빈의 사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종교개혁자이며 신학자인 칼빈은 이론적인 신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실천적인 사회개혁사상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사회봉사활동사상의 체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II. 사회봉사활동의 사상적 배경

1. 사회관 이해

1) 칼빈의 사회관 이해

칼빈은 효과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제네바 시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혁하고자 한 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칼빈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였기에 이러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을까? 칼빈에게 있어 사회봉사활동의 장소가 되는 사회는 대체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의 집단으로서, 인간들의 필요에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이다.³ 그런데 특별히 칼빈에게 있어서 항상 사회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었다.⁴ 그래서 그는 “인간은 분리되어 홀로 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묶으시고 결합해 주셨다”⁵고 했다. 그렇다면 칼빈은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이웃’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가? 칼빈은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이웃’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로 인식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사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⁶ 칼빈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³ *Comm. Gen.* 1:28;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192. 칼빈은 사회봉사활동과 관계해서 “사회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그 성격은 상호혜택에 있으며, 그 의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보았다.

⁴ Bouwsma, *John Calvin*, 201: “그는 노동과, 부나 시간의 유용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그가 이러한 것들을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드문 자원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⁵ *Serm.*, No. 71 on *Job*, 115.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으로서 같은 필요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⁷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인간사회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심각하게 변질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가족생활, 사회생활이 결정적으로 뒤틀려 버렸다.⁸ 그리고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사회 자체가 왜곡되고 계급사회와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 낸 것이다.⁹ 그런데 칼빈은 타락한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¹⁰ 그러므로 타락으로 변질된 이 사회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요컨대, 사회봉사활동과 관계해서 칼빈은 신본주의적인 사회이해의 입장을 취하였다. 즉, 칼빈이 보는 사회란 인간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회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나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과 함께 변질된 이 사회는 그리스도 연합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 영향에 의해서 이상적인 사회로 회복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2) 김용기 장로의 사회관 이해

김용기 장로는 사회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은

⁶ *Opera*, 45, 613.

⁷ Alton Temple, “The Individual And Society in the thought of Calvin,” 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23/2 (November, 1988): 170.

⁸ *Comm. Gen.* 4:19: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개인적 성격보다 사회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자연에 대해 지을 수 있는 죄보다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죄가 더 많고 강하기 때문이다.”

⁹ *Opera*, 23, 28; *Comm. Gen.* 1:28.

¹⁰ Calvin, *Institutes*, II. 15. 4: “구원을 향한 출발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회복 가운데 있다.”

원래 혼자서는 살지 못하며 서로 돕고 살게끔 만들어졌다”¹¹고 했다. 특별히 김용기 장로는 가정을 사회의 중심이라고 말했다.¹² 그에 의하면, “국가와 사회는 개개의 가정으로 구성되고 가정은 식구들로 구성된다.”¹³ 그리고 김용기 장로에 따르면, 국가의 기본요소가 되는 가정이란 모든 도덕과 문명과 사랑의 기초가 되며, 한편 편협한 이기심을 극복하는 기초도 된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의 견고한 단결체이며, 행복의 안전 보장체인 동시에, 혼란하고 때로는 귀찮은 세상에서의 피난처도 된다. 그래서 그는 “사회와 국가의 중심인 가정부터 다스린 후에 이웃을 돕고 남들의 교육사업도 하는 것”¹⁴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이러한 가족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사랑하는 것이 사회의 본래적인 역할임을 말한 것이다. 특히 그는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실현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 김용기 장로에 의하면, 사회봉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범을 보인 이웃을 섬기는 일로서, 피차 이웃끼리 섬기고 섬김을 받는 가운데 사랑하게 되고 복된 기쁨과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것이다.¹⁵ 또 그에 따르면, “희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다. 즉, 피차가 남을 위해 자기를 포기할 때 다 같이 살고, 사랑함으로써 단합하게 되어 어떤 일이라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⁶ 이와 같이 가나안농군학교는 생활, 특히 공동체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기장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인간’으로 보고 그 교육목표를 ‘참인간’의 형성으로 보았는데, 이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김용기 장로는 인간사회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과 함께 변질되었다고 인정한다.¹⁷ 그 결과로 김용기 장로가 불

¹¹ 김평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서울: 고려원, 1997, 초판 9쇄), 41.

¹²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서울: 규정문화사, 1998), 353.

¹³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350.

¹⁴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352.

¹⁵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344.

¹⁶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344.

¹⁷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58. 김용기 장로가 불 때, 타락한 현대사회의 양상은 인구폭발, 도시

때, 인격형성 교육을 위한 우리의 현실은 가정교육의 부재현상과 학교교육의 부재를 가져 왔다.¹⁸ 그러므로 그는 교육이념을 개인적으로 올바른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한 ‘인간화’ 교육을 지향하며, 동시에 개인의 참자아를 사회적으로 의롭게 전개함으로써, 현실사회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건설하려는 ‘사회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달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¹⁹ 그렇기 때문에 김용기 장로에 의하면, 사회봉사활동과 관계해서 이 사회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모든 이웃은 사회봉사활동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다. 그리고 칼빈에게 인간사회는 인간들의 집합체로 사회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나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그러나 사회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심각하게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과 함께 변질된 이 사회는 그리스도 연합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 영향에 의해서 이상적인 사회로 회복되어 나가야 된다고 했다.

김용기 장로는 인간사회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과 함께 변질되었으며, 사회생활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창조와 함께 사회가 창조되었고, 인간의 타락과 함께 사회도 변질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기 장로에 의하면, 이 사회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칼빈과 김용기 장로 두 사람 모두는 사회를 반드시 필

폭발, 지식폭발, 기술폭발로 표출되었다. 더 나아가 그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이러한 폭발들과 더불어 자아 상실, 공동체의 상실, 전통적 가치관의 상실, 이상의 상실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게 된 것이다.

¹⁸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59.

¹⁹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56. 김용기 장로는 “이러한 상실의 문제와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에 대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사랑의 추구하고 그 구현에 있다”고 했다.

요한 공동체로 인식했다. 그리고 칼빈은 공동체를 통한 이웃사랑을, 김용기 장로는 가정을 모체로 이웃사랑을 강조를 했다. 그렇다면 사회에 대한 칼빈과 김용기 장로 두 사람의 사상은 실천적인 면에서 조금 다를 뿐,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상적 배경 비교

1) 칼빈의 사상적 배경

첫째, 칼빈의 사회봉사활동의 사상적 배경은 그의 인간론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행하는 기초는 근본적인 인간의 행위의 문제이다. 즉, “사회사업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거나 또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던 간에 존귀한 생명과 인격을 가지고, 생존하는 존재라는 인간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²⁰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그의 사회사업 활동 사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의 인간론이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이 사실이다.²¹ 먼저 칼빈은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창조된 인간을 그 자체로서 긍정적으로 보았다.²² 칼빈이 볼 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 스스로 완전한 윤리적 삶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²³ 그런데 칼빈에 따르면,

²⁰ 김만두·한해경,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재, 2000), 105.

²¹ Cf. 이오갑, “인간론”,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사회, 2000), 154-56. 칼빈의 사상 속에 인간학은 그렇게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면모를 갖지는 않는다. 그런데 칼빈의 인간학에서 한 가지 특징은, 그가 인간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즉, 칼빈은 인간을 대부분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그의 관점은 인간학이 신학적 인간학(Anthropologie théologique)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칼빈의 인간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앞에 선 인간의 실존, 삶과 죽음, 운명, 의미의 문제에 집중한다.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²² Calvin, *Institutes*, I. 15. 1.

²³ Cf. Calvin, *Institutes*, II. 3. title; Calvin, *Institutes*, II. 1. title.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윤리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본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즉,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칼빈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았던 것이다.

둘째, 칼빈의 선행에 대한 이해는 그의 구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선행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선행은 필연적 행위이며, 신앙의 열매다. 또한 신앙은 중생의 한 면이기도 하다. 칼빈은 성도의 행위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칼빈에 따르면, “성도들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알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表徵: signs)”²⁵이다. 그리고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그들의 선택을 추론(推論)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칼빈에게 “행위는 소명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양심의 결백을 느껴 믿음을 강화하며, 소명의 결과를 보고 자신들이 주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²⁶ 따라서 칼빈에 따르면, 그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신앙의 열매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셋째, 칼빈의 사회봉사활동은 그의 교회론에 근거한다. 특별히 그의 교회론 가운데 사회봉사활동과 관계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칼빈은 교회를 영적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 비유했다.²⁷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 교회의 직무는 단

²⁴ Calvin, *Institutes*, II. 15. 4.

²⁵ Calvin, *Institutes*, III. 14. 20; OS IV, 238.

²⁶ Calvin, *Institutes*, III. 14. 19.

²⁷ Calvin, *Institutes*, IV. 1. 4. Cf. M. Luther, *Deutsch Catechismus*, The Larger Catechism,

지 영적인 직무가 아니며,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교회는 영적인 부(富)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도 분배와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자가 맡은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데서 유래한 일종의 분화된 평등이다.²⁸ 그리고 칼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해했다.²⁹ 칼빈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정적(靜的)인 제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로서 피차에 봉사와 도움을 주는 공동체이다.³⁰ 칼빈에 의하면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며, 단지 영적이기만 한 기독교적인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³¹ 또한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해했다.³² 즉, 칼빈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근거할 때, 확고하고 지속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³³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교회 구성원끼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상호간에 유통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칼빈은 사회봉사활동과 관계해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즉, 그것은 교회는 실천적 공동체이어야 하며³⁴, 신앙은 "한 사람만을 위한 특수한 것이 아니라, 전교회의 유익과 교육을 위한 것"³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교회의 실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의 직원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

1529, 제2부 3조; *Augsburg Confession*, 제7항.

²⁸ *Comm. II. Cor.* 8:14.

²⁹ Calvin, *Institutes* (1541), 120, 384, 122.

³⁰ Cf. Calvin, *Institutes*, IV. 1. 2; OS 5. 5. 3; OS 1, 466.

³¹ *Comm. John*, 3:17.

³² CR 13, 283.

³³ Cf. Calvin, *Institutes*, IV. 1. 3; OS 5. 6. 3.

³⁴ *Comm. Matt*, 14:16. 칼빈은 "지금까지 예수는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열중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심지어 육체를 돌보는 일까지도 그의 직무에 속한다. 이를 통해 그는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확신시키신다"라고 했다.

³⁵ *Serm. No. 73 on Job*, 141-42.

각했다.³⁶ 특히 장로의 직분은 실제로 제네바에서는 사회봉사활동과 관계해서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통해 잘 표현되었다.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의료사회사업을 위해 교회법령을 제정해, 고대 교회에 있었던 당시의 집사들(*procureurs*)과 구빈원(*hospitallers*)들의 제도를 활용해서, 제네바의 의료봉사활동에 적용했다.³⁷

2) 김용기 장로의 사상적 배경

첫째, 김용기 장로의 사회봉사활동의 사상적 배경은 칼빈의 경우와 같이 그의 인간론에 기초하고 있다.³⁸ 그런데 김용기 장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인간의 생활과의 관계면에서 해석을 시도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창조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여 권위있게 하여 천지를 주관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김용기 장로는 천지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여럿이 모여 그 일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또한 각자 개개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³⁹ 김용기 장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용기 장로가 볼 때,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육은 땅에서 나는 농산물의 영양을 섭취해야 살게 된다. 그러므로 흙은 우리의 모체요, 우리들을 먹여 살리는 원천이다.’⁴⁰ 그런데 김용기 장로는 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흙과 사람 즉, 천·지·인(天

³⁶ Calvin, *Institutes*, IV, 3, 1;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도서출판 이레, 2001), 63. 그래서 심지어 오토 베버는 “칼빈의 교회는 직분을 중심한 교회(Amtskirche)이다”라고까지 말했다.

³⁷ Calvin, *Institutes*, IV, 3, 9.

³⁸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78;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305.

³⁹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200; Cf. *Comm. I Thess.* 4:11, 김용기 장로가 이해한 사명의식이란 자기의 본분대로의 일을 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칼빈의 소명교리의 내용과 동일하다.

⁴⁰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78.

地人)의 연관성을 그의 인생관으로까지 삼았다. 그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고, 그리고 흙에 의존해서 흙과 관련성이 깊은 사업을 해야 하고, 또한 인간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아름답고 존귀한 생활이라고 믿었다.⁴¹ 그런데 이러한 김용기 장로의 천지인(天地人) 사상은 그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⁴² 요컨대, ‘인간’을 보는 김용기 장로의 사상은 전체적으로 칼빈의 사상과 아울러 성경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특히 현 시대의 문제점을 ‘인간’으로 보는 그의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용기 장로가 농사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천지인(天地人) 사상을 성경의 사상과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됨으로, 김용기 장로는 ‘유교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했다는 것을 입증시켜 준다.

둘째, 김용기 장로의 사회봉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선행에 대한 사상 또한 칼빈과 같이 구원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에 있어 선행의 실천은 우선적으로 어릴 때부터의 신앙적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즉, 그가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과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간의 도리로서 지극히 당연하다는 부모들의 가르침에 의한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⁴³ 그리고 김용기 장로가 평생 동안 모든 일들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력있게 실행할 수 있었던 실천력은 그의 부모와 서당교육의 산물로 보여진다.⁴⁴ 요컨대, 사회봉사활동과 관계해서 김용기 장로의 선행에 대한 사상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⁴¹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79.

⁴²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80. 이를테면 그가 “예수를 믿고, 농촌에 이상촌을 세우며, 아들을 분가시키지 않고 한 울타리에서 함께 농사지으며 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연차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모두 천지인(天地人) 연관성의 이념을 그 스스로 실현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⁴³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19-20. 김용기 장로의 부친은 농사꾼이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은 눈에 일하러 나갈 때에도 오해를 받아 가면서 까지도, 집에서 자신의 논까지의 사이에 있는 많은 이웃 논들의 물꼬를 모두 돌봐주고 갈 만큼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⁴⁴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19-20.

생활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의 형성의 배경에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선행에 대한 이해’의 부분에서는 김용기 장로와 칼빈의 사상이 서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김용기 장로의 교회론에 대한 사상들은 기독교를 모체로 하면서도, 때로는 다양한 다른 종교적인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철학’에 대해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칼빈은 자신의 삶의 전반을 통해 보여졌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철저히 기독교 신앙으로만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그는 오직 기독교적 배경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칼빈의 모든 사상과 삶은 성경에 기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제네바 시 전체를 통해, 사회사업을 본보기로서의 사회사업을 행하게 한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그의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증생된 삶이, 칼빈에게 그러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⁴⁵

김용기 장로는 스스로 자신의 사상의 배경을 기독교라고 말한다.⁴⁶ 물론 그렇다. 그런데 그의 사상에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상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김용기 장로는 어렸을 때부터 부친을 통해서 기독교를, 서당교육을 통해서 한문과 소학(小學)을 배웠다.⁴⁷ 그래서 그는 개혁적이고 서구적이며 진보적인 기독교 신

⁴⁵ Cf. Bouwsma, *John Calvin*, 29. Bouwsma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불어판 서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이해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빛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는 단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라는 칼빈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⁴⁶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00.

⁴⁷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25. 소학은 어린 사람으로서의 몸가짐과 어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예의, 공대, 범절들을 수록한 수신(修身)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양을 가졌는가 하면, 보수적이며 동양적인 유교와 아울러 불교를 깊이 이해했으며, 이러한 사상들은 그의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⁴⁸ 이는 가나안농군학교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⁴⁹ 이와 같이 김용기 장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상당한 부분들은 인본주의적 사고와 이교적 여운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칼빈과 김용기 장로 두 사람의 사상적 배경은 그 출발은 다 같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칼빈은 유년기부터 기독교적 신앙과 또한 성정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진 기독교 교육으로 인해 모든 사상적 배경에서 신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에, 김용기 장로는 기독교 신앙과 더불어 자신의 삶의 깨달음을 통해 얻어진 인본주의적이며, 이교적인 색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근간에 두고 있음에도 그들의 사상적 배경을 결코 동일하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III. 사회봉사활동의 실천 과정

1. 칼빈의 사회봉사활동 실천 과정

칼빈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의 권력과 교회의 내적인 능력을 통해 사회의 부분적인 회복과 인간의 부분적인 결속이 이루어 질 것을 믿었다.⁵⁰ 그런데 칼빈은 복음의 능력이 제네바인들의 삶에서 충만히 열매를 맺는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다른 어느 것보

⁴⁸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01. 이는 그의 '조화의 철학', '중용(中庸)의 철학'과 관계가 깊다.

⁴⁹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03-104.

⁵⁰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Atlanta: John Knox Press, 1971), 56.

다 우선적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을 제네바 시민들의 삶의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칼빈은 이러한 삶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첫째, 칼빈은 사회적 권징을 통해 제네바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했다.⁵¹ 그는 “정부가 의견을 같이 하지 않으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로 유지해 나갈 수 없다”⁵²고 보았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원만하게 실행하기 위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가의 권력을 필요로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회적인 규제기구로서 생겨난 것이 ‘제네바 콘시스토리’였던 것이다.⁵³ 제네바 콘시스토리는 교회에 속한 권징기구로서, 일종의 교회 법원이었다.⁵⁴ 콘시스토리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행한 자들을 소환하고, 훈계하며, 출교하는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은 칼빈의 바람은 제네바에서 권징에 관한 전통을 확실하게 심어주어 시민들 개인의 복지를 견고하게 하려는 그의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한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⁵⁵ 그런데 칼빈에게 이러한 권징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제때 때문일지라도 악한 행동을 억제시키고, 덕행에 대해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선행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었다.⁵⁶ 그리고 칼빈은 사람들의 외적인 행위에 부과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억제라도, 종종 보이지 않지만 외적인 모습으

⁵¹ Cf. Calvin, *Institutes*, III, 4, 19; Cf. *Comm. Dan*, 1:4.

⁵² CR 11, 281; Herminjard 7, 249; Cf. English Translation of *Calvin's Letters*, 1:260.

⁵³ Cf. Calvin, *Institutes*, IV, 20, 2.

⁵⁴ Cf. *Register of the Commentary of Pastors in Geneva at the time of Calvin* (containing the Ecclesiastical Ordinances of 1541),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by Philip E. Hughes (Grand Rapids, 1966), (이하 R.C.P) 41-44, 35; Cf.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53, n. 11. “제네바 콘시스토리는 제네바 목사회(The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소속 목사들이 직무상(*ex officio*)의 자격으로 참석하고, 장로들이 참석하여 구성되었다. 이것은 감독회 혹은 치리법회라고도 불렀다.

⁵⁵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32.

⁵⁶ Cf. Calvin, *Institutes*, IV, 20, 9.

로서의 ‘선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⁵⁷

둘째, 칼빈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네바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했다. 제네바 사회봉사활동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칼빈의 메시지였는데, 특히 이신칭의에 대한 그의 설교는 16세기에는 혁명적인 것이었다.⁵⁸ 그런데 무엇보다도 칼빈의 설교는 믿음에로의 참여를 요구했는데⁵⁹,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교를 했다.”⁶⁰ 그러므로 칼빈의 설교는 생동감과 열정과 명백성이 있는 반면에 회중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힘이 있었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즉, 설교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전 준비의 일환이다.⁶¹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설교란 모든 타락한 피조물을 갱신(更新)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했다.⁶² 또한 칼빈은 설교를 통하여 각 신자의 실존에서 나타나야 할 ‘개혁’이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게 해서 오직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다리게 하는 결과를 인식하게 이끌었다.⁶³ 그래서 칼빈은 복음을 통한 도전과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이 세상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 곧 가정, 교육, 경제 그리고 정치문제를 깨끗하게 하며, 새롭게 하고 지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⁶⁴

셋째, 칼빈은 성례를 통해 제네바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했다. 칼빈에게 있어 성례는 사람들이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

⁵⁷ Cf. Calvin, *Institutes*, II. 3. 3.

⁵⁸ Cf.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18-20.

⁵⁹ Cf. T. H. L.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9), 192, 194, 196.

⁶⁰ CR 53, 266; Calvin, *Institutes*, I. 7. 1.

⁶¹ CR 37, 191 (Isa. 49:2).

⁶² CR 37, 237 (Isa. 51:16).

⁶³ *Serm. on Synoptic Gospel* 46, CO XLVI, 574.

⁶⁴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28.

되는 가시적인 신비적 행위였다. ⁶⁵ 그에게 있어서 “성찬”은 글자 그대로 공동체의 한 기능으로서, 그것에 의해 “우리는 우리 머리와 더불어 한 몸과 한 실체로 결합되는 것이다.”⁶⁶ 칼빈은 성찬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 돕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⁶⁷ 그리고 칼빈은 사람이 성례를 적절하게 받게 된다면, 성령의 권능이 성례와 결합하여 생활의 성결과 특별히 자선에 있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수단과 도움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⁶⁸ 왜냐하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교통신의 모든 것을 내포하는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통신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사람들에게 성례가 암시하는 바를 받아들여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강권하였다. ⁶⁹

요컨대, 칼빈은 교회를 통해 사회가 부분적으로 구원을 얻으며, 인간의 부분적인 회복이 이루어 질 것을 믿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국가의 권력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권징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교회의 표징이며, 복음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성결케 하시는 능력을 사회에 적용시켰던 것이다. 사회봉사활동의 도구로서 실시된 교회의 권징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제네바시의 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2. 김용기 장로의 사회봉사활동 실천 과정

김용기 장로는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1900년대라는 시대적

⁶⁵ Cf. Calvin, *Institutes*, IV, 17, 2.

⁶⁶ L. C. to Viret, Aug. 23, 1542, CO XI, 431.

⁶⁷ Cf. Calvin, *Institutes*, IV, 17, 38.

⁶⁸ Calvin, *Institutes*, IV, 17, 38.

⁶⁹ Cf. Comm. I Cor. 11:27.

으로 모든 면에서 혼란한 어려운 격동기를 거쳤다.⁷⁰ 그러나 그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생존과 관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양(量)과 질(質)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므로, 국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이다.⁷¹

첫째, 김용기 장로는 의식화 교육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실행하기를 원했다. 그는 한민족의 80%나 되는 농민의 의식이 높아져서 농민들끼리 단합을 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으며, 농업소득을 높이는 일을 동시에 병행하였다. 특히 김용기 장로는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당시의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민교육을 실시했으며, 농민협동운동을 했다. 그리고 식생활, 의식주, 의례의식 등의 개선을 주도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외에도 그는 농기구의 공동관리, 종자의 공동저장관리, 농지개발자금의 상부상조 등을 협동정신에 따라 실현해 나갔으며, 그것을 서서히 확장해 나갔다. 그런데 김용기 장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의 개선을 위해 먼저 가족부터 솔선수범 했다.⁷²

반면에 칼빈은 국가의 권력과 교회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이상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손을 잡고 성경적 세계관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었다.⁷³ 그리고 칼빈의 행동지침 또한 김용기 장로의 그것과 동일하다. 칼빈에 따르면, 인간들의 사악함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지배자들 편에서의 솔선수범, 근면, 그리고 자기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⁷⁴

⁷⁰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02. 그는 한일합방 되던 바로 그 전 해에 태어났고, 그가 10세 되던 해에는 3·1운동이 일어났다.

⁷¹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08.

⁷² 김용기, 『나의 한길 60년』, 132-34.

⁷³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56.

둘째, 김용기 장로의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 관한 실제적인 관심은 이상촌운동(理想村 運動)⁷⁵을 통해 표면화되었다.⁷⁶ 그가 첫 번째로 시도한 개척사업이 ‘봉안이상촌’(奉安理想村) 건설사업이었다.⁷⁷ 여기서 김용기 장로는 부락민들에게 개척 기술과 영농 기술을 습득시키고 생활 개선의 선도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을 가르쳤으며, ‘근로’, ‘봉사’, ‘희생’의 정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강조했으며,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을 운영했다.⁷⁸ 또한 그는 봉안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청년회를 통해 야학 운영으로 「봉안 이상촌」 인근 부락민들에 대한 문맹퇴치 운동을 펼쳐 나갔다.⁷⁹ 이어서 김용기 장로는 1946년 봄에 구기리 과수원을 중심으로 제 2차로 「삼각산 농장」을 개척하였는데, 그는 그곳에서 4년간 머물면서 새 이상촌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농민운동과 더불어 복음화운동을 하였다.⁸⁰ 김용기 장로의 제 3차 개척지는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의 7만평의 「에덴향」이었다.⁸¹ 오늘날 가나안의 생활이라고 특징지워지는 개척자적 생활의 모델은 이때 확립하게 된 것이다.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극도로 물자부족에 허덕이던 때였지만, 가나안의 독특한 생활규범인 근검·절약·근면·정직으로 일관된 엄격한 생활규칙으로 최악의 어려

⁷⁴ *Comm. Is.* 22:24.; *Comm. Ps.* 72:4; Calvin, *Institute*, IV, 20, 10.

⁷⁵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32-33. 그는 이상촌을 “오곡이 익어가며, 과수들의 꽃이 만발하고, 벌과 나비가 춤을 추고, 집집마다 찻찌는 양이 있고, 교회가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형제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근로하여 생산함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정신적·영적 안위를 얻을 수 있는 「에덴동산」”으로 표현했다.

⁷⁶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73.

⁷⁷ 김용기, 『나의 한길 60년』, 30.

⁷⁸ 김용기, 『나의 한길 60년』, 34.

⁷⁹ 김용기, 『나의 한길 60년』, “먼저는 농촌 유년교육으로, 신앙훈련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시킴을 원칙으로 하여 봉안교회 안에서 유치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농번기 탁아소도 운영했다. 그리고 『봉안 이상촌』에서는 4H 클럽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공경, 다음 이웃 사랑, 그리고 애항정신 곧 흠을 사랑하는 사상을 주입시켰다.

⁸⁰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14.

⁸¹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14.

움을 극복해 나갔다.⁸² 김용기 장로가 제 4차 개척지로 선택한 곳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이었었는데, 그 마을 이름부터가 황산(荒山)이었다. 정말 거친 땅, 거친 마을에 「가나안농장」을 개척하기로 한 것이다.⁸³ 이와 같이 김용기 장로는 이상촌들을 만들어 민족을 계몽하고자 했다.

칼빈은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 세계 문제에 대해 심각한 관심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시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네바 시민들의 생활의 질의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펼쳐 나갔다.⁸⁴ 이를테면 칼빈은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당한 청년들의 직업교육과 성인들을 새로운 직업에 배치시키는 작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김용기 장로는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1900년대라는 시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혼란한 어려운 격동기를 거쳤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생존과 관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양(量)과 질(質)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므로, 국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러한 김용기 장로의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 관한 실제적인 관심은 이상촌운동(理想村運動)을 통해 표면화되었다. 특히 김용기 장로는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끊임없이 당시의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민교육을 실시했으며, 농민협동운동을 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다 같이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⁸²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16.

⁸³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216. 김용기 장로는 처음 이사 올 때부터 그곳을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하였으며, 이 마을을 표본으로 하여 장치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 가나안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하려는 꿈을 가졌다.

⁸⁴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71. “실제로 칼빈은 당시에 피난민이 밀려 들어와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 제네바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공공사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위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했던 것이다. 그런데 칼빈의 사회봉사활동은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해가 바탕이 된 반면에, 김용기 장로는 공동체적인 계토 정신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IV. 사회봉사활동의 실제

1. 칼빈의 사회봉사활동의 실제

1) 교회를 통한 사회봉사활동

칼빈의 교회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집사직분을 활용한 ‘의료봉사활동’, 학교를 통한 ‘교육봉사활동’과 ‘피난민을 향한 봉사활동’ 등이다.

첫째, 칼빈은 고대 교회에 있었던 당시의 집사들과 구빈원들의 제도를 제네바에 활용해서 ‘의료봉사활동’을 했다.⁸⁵ 먼저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고아들, 과부들, 피난민들 등에 대한 기독교의 관심은 집사직에서 제도화되었으며, 법률에 의해 입법화되었다. 칼빈이 1541년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뒤에, 교회와 국가의 공동 관심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었다.⁸⁶ 그래서 그는 제네바에서 개혁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회법령을 제정했다. 이렇게 칼빈 주도 하의 교회와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관심에 있어서 하나

⁸⁵ Cf.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140: “칼빈이 1541년에 작성한 교회법은, ‘제네바 시립 병원’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는데, 이 병원은 일할 수 없는 병자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상태로 잘 유지되어야 했으며, 과부나 고아, 기타 빈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완전히 독립된 공간과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소를 갖추고 있었다.”

⁸⁶ Cf.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98.

가 되어 구빈원 제도를 만들어 서로 협력했다.⁸⁷ 이렇게 칼빈에 의해 1541년에 입안된 교회 법령들 가운데 새로 창안된 집사들의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목사들의 관심에 의해 잘 조직된 제네바의 자선은 확실하게 되었다. 집사직은 돈을 다루고, 구빈원을 정돈하고 감독하며,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편제되었다. 이와 같이 칼빈은 제네바에서 의료봉사자로서, 구빈원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함으로써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둘째, 칼빈은 ‘학교사회사업’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했다.⁸⁸ 칼빈은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며⁸⁹, 제네바 시 또한 교육에의 열정이 대단했다.⁹⁰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은 ‘교회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치리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⁹¹ 이 교회법에는 기존의 학교를 개선시키고, ‘아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리고 ‘목사와 시 당국자들’을 위해서 대학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포함되어 있었다.⁹²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제네바 시의회에 의하여 대부분 통과되었다.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제네바 대학 설립 목적은 ‘정부 관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⁹³ 칼빈은 제네바

⁸⁷ Cf. R. C. P., 43. ; *Serm. on Deut.*, 15:11-15, CO 27, 341.

⁸⁸ Cf. Bouwisma, *John Calvin*, 14. “칼빈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는 제네바 교회와 시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제네바 대학을 설립”해서 학교사회사업가로서 사회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⁸⁹ Cf.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97; Cf. C. L. to Protector Somerset, October 22, 1548. “루터나 멜랑히톤처럼, 칼빈 역시 개혁가로서의 사역 초기부터 아이들에 대한 학교 교육과 교리 문답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⁹⁰ Cf. *Histoire de Genève des origines à 1778*. Edited and published by La Société d'Histoire et d'Archéologie de Genève (Geneva, 1951), 225.

⁹¹ Cf. *Reg. Comp. Pasteurs*, I, 1. “목사회의 기록부(*Registers of the Company of Pastors*)에서 발견된 그 법령의 사본은, 교회 법령의 정식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서문인데, 그 속에서 복음 전파의 직접적인 중요한 기관들로서 교회, 학교 및 구빈원 등을 소개하고 있다.”

⁹² Cf. 1541 *Ordinances*, R. C. P., 41; Cf. *Projet d'ordonnances ecclesiastiques*, 『칼빈전집』 X, 21.

에서 대학을 건립함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개별적으로도 대학에 지속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학교사회봉사활동을 실행했다. 그리고 그는 제네바 대학의 유지를 위해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갔다. 또한 그는 제네바 대학을 대표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사회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⁹⁴

셋째, 칼빈은 제네바로 피난 온 피난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사회봉사활동을 했다. 즉, 칼빈의 사회봉사활동의 정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네바로 유입되고 있던 종교적 망명가들, 특히 프랑스에서부터 온 망명가들에게서 발견되었다고 보여진다. 칼빈은 피난민들을 형제로서 환영했으며, 그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⁹⁵ 그리고 이것은 아마 다른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제네바로 이주하도록 칼빈이 격려한 한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⁹⁶ 칼빈은 성경의 “피난민과 망명자들, 특히 말씀에 대한 자신의 고백 때문에 추방된 믿음있는 자들을 친절하게 보살피라”⁹⁷는 말씀에서 그 의무의 근거를 찾았다. 이렇게 칼빈에게 피난민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의 이웃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은 당시 제네바의 경제상태가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의 힘을 빌어 피난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줌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행하였다.

요컨대, 칼빈은 교회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의료봉사활동’과 ‘학교사회사업’ 그리고 ‘피난민을 위한 봉사

⁹³ Cf.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100.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수립하여 많은 신학생들을 교육시켜 프랑스에 파견하여 프랑스의 개신교화를 추진하였다. 제네바 아카데미의 상급과정이었다던 schola publica는 오늘날 신학교에 해당하는데, 신속하게 학생들을 교육하여 프랑스의 종교개혁의 급속한 확산을 도왔다.”

⁹⁴ Cf. 표갑수, 『사회복지개론』 (서울: 나남출판, 2002), 416.

⁹⁵ Bouwsma, *John Calvin*, 25.

⁹⁶ Cf. L. C. to Bude's family, June 16. 1547. CO, XII, 542-43.

⁹⁷ *Comm, Isaiah 16:4.*

활동'으로 교회를 통해 제네바 시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활동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2) 국가를 통한 사회봉사활동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의 일반생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칼빈의 국가와의 협조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은 '결혼법'의 제정, '사치금지법'의 제정 그리고 '노동조합법'의 제정 등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은 '결혼법' 제정에 관여함으로써 실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했다. 1541년 교회 법령은, 시의회가 결혼을 관심사로 삼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⁹⁸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교회 법령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1545년 말엽에 결혼법(*Ordonnances sur les Mariages*)을 제정하는 일에 관여했다. 이러한 결혼법의 목적은, 남여 평등에 의해 이루어진 결혼이 성공적인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고, 실패할 경우에 돌보아 주어야 될 모든 예측 못할 사건에 대비한 모든 가능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칼빈의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칼빈은 '사치금지법'의 제정에도 관여함으로써 사회봉사활동을 했다. 칼빈은 '사치'를 죄로부터 생겨나는 일반적 악(惡) 중의 하나로 보았다.⁹⁹ 1558년에 시의회에 의해 제정된 '사치 금지법'은, 실제로 빈곤 퇴치의 일환이었으며, 아울러 빈부의 격차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쓸데 없는 소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¹⁰⁰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의 제네바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 한 원리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살아남기 위

⁹⁸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67.

⁹⁹ Cf. *Comm. Jer.* 22:14.

¹⁰⁰ Cf.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110.

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¹⁰¹ 이렇게 칼빈은 사치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거리감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룬다는 것을 사회봉사활동의 목적으로 삼았다. ¹⁰²

셋째, 칼빈은 제네바에서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문제와 ‘노동일수’와 ‘노동조합’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사회봉사활동을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문제의 유형은 빈곤의 문제이다. ¹⁰³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빈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노동일수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¹⁰⁴ 사회봉사활동의 목적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¹⁰⁵에 있다. 그래서 칼빈은 임금과 노동 조건들에 관한 어떤 명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적 계약이 합치된 동의를 명시해 줌으로써, 어떤 불평등과 부당함을 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¹⁰⁶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과 노동일수에 대해 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동조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¹⁰⁷ 구체적으로 칼빈은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임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싸움들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임금협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칼빈은 노사간에 임금협상을 할 때에, 시의회가 중재하여 양자

¹⁰¹ Hans Helmut Eßer, “Die Aktualität der Sozialethik Calvins,” 번역 권호덕 교수 (1998. 9. 5. 한국개혁신학회 정기심포지엄), 권호덕, 『칼빈신학 강의안 2005년도』 (천안: 천안대학교 기독교신대원), 342.

¹⁰² Cf. 김안호·양철호·류종훈,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2), 37-40. 사회사업의 목적은 먼저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확보, 인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보장, 정상화, 사회적 통합 등이다.

¹⁰³ Cf. 김안호·양철호·류종훈, 『사회복지학개론』, 323-24.

¹⁰⁴ Cf. 김안호·양철호·류종훈, 『사회복지학개론』, 125. 왜냐하면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구조 하에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실업, 정신적·물질적·사회적 결핍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심신의 장애를 가지며, 혹은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여 사회적인 문제집단을 형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¹⁰⁵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재, 2000), 105-108.

¹⁰⁶ Cf. *Opera*, 23, 401f. = *Comm. Gen.* 29:14.

¹⁰⁷ *Serm. on Deut.* 15:11-15.

의 합의하에 계약을 맺도록 지도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집단계약을 구상하기도 하고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진하기도 했다.¹⁰⁸ 이와 같이 칼빈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리고 평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노동일수, 임금,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의 보호에 앞장 섬으로 진정한 사회봉사활동을 했던 것이다.¹⁰⁹ 또한 칼빈은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했다. 이를테면 칼빈은 제네바의 산업 가운데서도 '직물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칼빈은 구빈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었으므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하여 직물업을 도입하였던 것이다.¹¹⁰ 그리고 칼빈은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인쇄업'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¹¹¹

2. 김용기 장로의 사회봉사활동의 실제

1) 교회를 통한 사회봉사활동

김용기 장로는 교회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평생에 8개의 교회를 세웠고, 250 여회에 걸쳐 교회 부흥집회를 열었으며, 3천 여회의 강연 중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의 설교였다.¹¹² 그리고 그는 그동안 다섯 권의 책을 썼고, 또 16만 명의 젊은이에게 개척사의 혼과 신앙의 씨를 심어 주었

¹⁰⁸ *Comm. Gen.* 29:14.

¹⁰⁹ Cf. 표갑수, 『사회복지개론』 55, 77. 노동조합의 결성은 사회사업의 구성 방법 중 사회구조론적 접근이다. “이러한 관점의 사회사업은 빈민 및 노동자 계급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자본주의 제도의 결함으로 생긴 빈민, 노동자, 불우한 자,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사회봉사, 단체교섭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¹¹⁰ Cf. Amèdèe Roget, *Histoire du peuple de Genève depuis la réforme jusqu'à l'escalade*. 7 vols. (Geneva: J. Jullien, 1870-1883), II, 150.

¹¹¹ Cf. Abbott Payson Usher, *History of Mechanical Inventions* (Boston: Beacon Press, 1959), 238.

¹¹² 김용기, 『나의 한길 60년』, 서문;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00.

다. 교회를 통한 김용기 장로의 사회봉사활동은 다음과 같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김용기 장로는 ‘봉안이상촌’을 통해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시켜 나갔다. 113 ‘봉안이상촌’은 협동정신으로 무장되었으며,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개인의 자유를 무한히 누리게 했다. 114 그는 당시 ‘이상촌’이 기독교의 형제에 정신에 기인한 유무상통의 생활을 실천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평등의 생활을 했다고 했다. 즉, “자기가 생산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소유이고, 먹고 남는 것은 이웃에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 주고, 교회에 바쳐 공공의 일에 쓰게 했다.”¹¹⁵

둘째, 김용기 장로는 현세의 생활을 특별히 강조했으며, 실천적인 삶을 신앙과 연관시켜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현세의 생활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116 그리고 김용기 장로에 따르면, 현세의 참생활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고 가면 그것이 곧 천국이요, 그 천국생활을 이 땅에서도 실현하기 때문에 이 땅도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이요, 생활은 현세의 복락을 위한 생활이다. 그러므로 생활이 곧 신앙이 곧 생활이 되는 태도로써, 이 땅 위에서도 복되게 살며 그 복된 생활을 그대로 천국에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다. 117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초한 사상이 아니라 김용기 장로의 자기이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가나안농군학교는 농촌순회강연을 시발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김용기 장로는 황산 가나안농장에서의 일을 시작하기 전

113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90.

114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98.

115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97.

116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95.

117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95. 그런데 그가 말하는 신앙생활로 얻어지는 복된 생활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현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의 생활을 의미한다.

에 겨울 동안을 이용해서 광주군 내의 농촌을 계몽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아들 3형제와 김용기 장로는 4인조 악단을 만들어 농촌계몽 유세를 시작했다.¹¹⁸ 그의 강연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그릇된 것을 낱알이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개선책, 농사에 대한 의의, 사회생활의 대요, 인생의 도달할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를 거론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¹¹⁹ 이렇게 시작한 강연 집회는 무려 30여년에 걸쳐 시행되었다.¹²⁰ 이러한 계몽강연은 날이 갈수록 청중이 불어나고 소문이 퍼졌다. 그것이 차츰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져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가나안농군학교였다.

요약해 보면, 김용기 장로는 교회를 통한 봉사활동을 했지만, 그는 복음의 진리전파를 통한 것보다는 교회공동체를 활용해서 농촌 계몽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제네바 시민의 사회의식 변혁을 위한 개혁의 중심에 세우려 했다. 즉,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 제네바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다.¹²¹ 그래서 그는, 제네바 교회를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 굳게 세워, 그것을 기초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¹²²

2)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김용기 장로는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제 1, 2 가나안농군학교를 통해 나타났다. 1962년 2월 1일 제 1가나안농군학교가 개교되었다.¹²³ 가나안농군학교는 농군의 정신(農心)을 배우는

¹¹⁸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197.

¹¹⁹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200-201.

¹²⁰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251.

¹²¹ Cf.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117.

¹²² Calvin, *Institutes*, IV. 1. 1-10.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⁴ 즉, 가나안농군학교는 교육목표를 농촌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것에 세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생활태도 그리고 일반 마을 사람보다 앞서가는 농업기술과 지식을 가르쳤다. 그런데 김용기 장로가 강조하는 교육목표인 정신적인 자세란 어떤 사상이나 의식 외에도 신앙과 인격, 그리고 생활태도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도덕적인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며, 주로 개척정신과 농촌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농민이 이 민족 앞에 짊어져야 할 사명을 인식하여, 그것이 우리의 참삶으로 어떻게 승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농민철학이었다.¹²⁵

가나안농군학교는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실행되었으며, 처음부터 농촌의 실제생활을 위한 교육을 했다. 즉, 가나안농군학교에서는 한 가정의 교육의 모델이 되어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생활이 곧 교재이며, 농장과 부엌이 곧 실습장이고, 가족이 모두 교사가 되어 가르쳤다.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의 내용은 농촌에서 꼭 알아야 할 실제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 배우게 된다.¹²⁶ 가나안농군학교는 일원이 된 학생들은 함께 합숙하며 생활하는 동안에 그 사상과 신앙, 정신과 기술, 생활과 습관이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실현되도록 내면화된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지역 사회가 달라진다는 것이다.¹²⁷

가나안농군학교가 범국가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은 막사이사이상 수상이다. 1966년 8월, 필리핀의 유명한 막사이사이상 재단

¹²³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21.

¹²⁴ 김평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252.

¹²⁵ 김평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252.

¹²⁶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251-52. 교육과목은 조리법, 농산물 가공법, 농촌의 생활개선, 향무지 개척법, 이상촌 건설법, 과수재배법, 축산법, 일반농업기술, 모범농가 창설법, 음악, 체육, 육아법, 종교학, 회의진행법, 민법 등이다.

¹²⁷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121.

에서 김용기 장로에게 사회공익 부문의 상을 수여하였던 것이다.¹²⁸ 그런데 특별히 김용기 장로는 사회봉사활동과 관계해서 사회문제의 원인을 가정생활, 특히 가정교육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는 일반사회생활 즉, 교육과 아울러 가정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 ‘효’사상을 특별히 강조했다.¹²⁹ 그런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말하는 효의 의미에는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이질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나안농군학교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효는 유교적인 효사상이 기독교적인 사상 안에서 통합된 것이라고 인정했다.¹³⁰ 즉, 그들이 말하는 효사상은 해석에 있어서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사상을 성경의 내용과 일치시키려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가나안농군학교는 교육신청이 너무 많아 부득이 학교를 지역에 따라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는 1973년 3월,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용암리에 제 5차 개척지인 제 2가나안농군학교를 세웠다.¹³¹ 가나안농군학교의 정규과정은 농촌지도자 양성과정인데 나중에는 이를 1개월~3개월로 구분하여 주로 영농후계자 양성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농군사관학교」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가나안의 정신을 체득하도록 유도하고, 가나안을 보고 느끼게 하여서 동참하도록 하며, 그 경험을 통하여 농민운동의 확신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은 1982년에 시작하여 계속해서 제 2가나안농군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¹³² 그리고 제 1, 2가나안농군학교와 복민선교원 및 농군사관학교를 통해, 2008년 4월 24일 현재 67만 2천여명 이상의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복민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¹³³ 김용기 장로의 학교교육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는

¹²⁸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22.

¹²⁹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70.

¹³⁰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72.

¹³¹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24; 김용기, 『나의 한길 60년』, 158-59.

¹³²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25.

외국의 대학교에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준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1978년 5월 26일 필리핀 세이버 대학 교 개교 45주년을 기념식에서 명예 인문 학박사 학위를 받았다.¹³⁴ 그리고 가나안농군학교는 다른 나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가나안농군학교에서는 1991년에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개척 가나안운동을 활발하게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기 장로 타계 후의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실적을 참조해 보면, 국내외적으로 사역의 진척은 별로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가나안농군학교는 교육의 2세기를 맞고 있다. 한 세대를 이끌어 가던 김용기 장로가 타계한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제자가 그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우선적으로 가나안농군학교의 경우 신학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실제로 김용기 장로가 갖고 있던 신학 사상은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과거지향적인 모습으로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가나안농군학교는 지속적으로 사회와 국가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독교사상에 기초를 둔 정신교육을 통해 새로운 틀을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가나안농군학교를 기독교 정신교육의 장소로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가나안농군학교가 확보하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서, 많은 기독교 교단과의 연대를

¹³³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67. 제 2가나안농군학교의 1973년 3월 27일부터 2008년 11월 기준 교육 과정별 교육 실적은 다음과 같다. 학생과정 364회 78,567명, 특별과정(사업체 임직원 교육) 1,058회 181,127명, 농군사관학교(영농후계자 교육) 17회 480명, 복민대학(성직자 교육과정) 49회 5,277명, 단기과정(초·중·고·대학생) 871회 85,419명, 가정교육과정 2회 87명, 어린이과정 53회 6,715명, 정신개혁과정 190회 6,705명, 의식개혁과정 360회 15,806명, 총계: 380,183명이며, 제 1가나안농군학교에서 총 수료생은 298,434명으로 총합계는 678,617명이다. 그런데 2008년 이후의 기록은 별로 뛰어나지 않다.

¹³⁴ 김용기, 『나의 한길 60년』, 188. 세이버 대학의 교육방침은 봉사적인 지도자 양성과 인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형성하여, 가나안농군학교를 전문적인 기독교 정신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칼빈의 사회봉사활동은 제네바 시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실행되어졌다. 그런데 그는 사회봉사활동의 주체를 민간부분으로는 교회, 공공부분으로는 국가로 생각하고 이 기관들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제네바 시민들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칼빈의 구체적인 사회봉사활동은 먼저 교회를 통해서서는 구빈원을 활용한 의료봉사활동,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용해 학교교육봉사활동, 그리고 피난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서는 결혼법의 제정, 사치금지법 제정 그리고 노동조합법을 제정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사회봉사활동을 실행했다. 또한 칼빈의 경제를 통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직물업과 인쇄업의 발전을 도움으로써 제네바시민들의 삶의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김용기 장로는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자 했다. 그것은 농촌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세운 제 1, 2 가나안농군학교를 통해 나타냈다. 그리고 김용기 장로의 가나안농군학교는 교회적, 사회적으로 국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특별히 가나안농군학교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를테면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효과적인 사회봉사활동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한국 사회 속에서 실추된 기독교의 인식변화를 도출해 내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기독교의 참된 모습을 사회를 향해 표현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종합해서,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그 지향점 그리고 과제에 대해 본 논문이 가르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사회봉사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인식한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성공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사회봉사활동 사상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를 하여 실행되었다는 데 있다. 먼저 칼빈의 사상적 배경은 인간론에, 선행에 대한 이해는 구원론에, 사회봉사활동 그 자체는 교회론에 근거한다. 그리고 칼빈은 효과적인 사회봉사활동의 실행을 위해서 제네바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는데, 이러한 삶의 변화는 국가의 권력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권징 그리고 교회를 통한 말씀과 성례의 성결케 하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상적 기초에 의해 칼빈은 사회봉사활동을 했다. 이와 같이 칼빈의 사회봉사활동의 전 부분은 성경을 기초로 출발하였으며, 아울러 그러한 신학사상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의 사회봉사활동은 철저한 성경중심 신학과 신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생활의 확장이었던 것이다.

김용기 장로의 사상 또한 칼빈의 사상과 같이 외형적으로는 성경에 기초를 하고는 있다. 그리고 현시대의 문제점을 ‘인간’으로 보는 그의 시각은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김용기 장로가 농사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천지인(天地人) 사상을 성경의 사상과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됨으로, 그는 ‘유교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했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김용기 장로의 사회봉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선행에 대한 사상은

칼빈과 같이 구원론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김용기 장로의 ‘삶의 철학’들은 기독교를 모체로 하면서도, 때로는 다양한 다른 종교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자기 주장이 관철되어야 할 생활과 관계한 부분에서는 자기철학을 첨가해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¹³⁵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시의 어려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상당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속에서는 그가 처음에 보여 주었던 한국사회를 향한 가나안농군학교의 정신교육과 계몽운동이 현대사속에서 더 이상의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사회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신학사상을 배경으로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은, 모든 한국의 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교회에 위임된 사역으로 교회활동의 본질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칼빈은 제네바의 교회를 개혁시킴으로 국가와 교회를 통해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했으며, 김용기 장로는 가나안농군학교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위에서 연구한 두 사람은 모두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유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사회를 향해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상당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교회의 본질과 목표를 사회를 향해 잘 나타내 보임으로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사회봉사활동을 교회사역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추진해야

¹³⁵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179; 174, 185, 188.

할 진정한 본질이며 목표라고 생각하고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의 과제는 실제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진정한 '개혁정신'을 가지고 실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연구한 두 사람 모두의 공통점은 그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가 '인간 사랑' 나아가 '공동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로 두 사람은 불모지 개척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했다. 이를테면, 칼빈은 대단한 개혁정신을 발휘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교회에서 직업창출을 위해 수공업을 권장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칼빈 이전에는 없었던 일로서 인간사랑과 공동체 정신의 신학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굉장한 개혁정신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리고 김용기 장로가 1900년대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농촌 개척과 농촌 근대화를 위하여 주로 황무지나 산지를 개간하여 산업의 기반으로 삼았던 일이나, 한국 농촌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는 운동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한 일,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을 포함하여 인간과 사회의 조화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가난한 농학교를 건설했던 일들은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시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교회를 통한 사회의 부분적인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낼 수가 있다.¹³⁶ 칼빈 당시의 상황은 그를 그러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었으며,¹³⁷ 칼빈 또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모든 상황

¹³⁶ Cf. Bouwisma, *John Calvin*, 32-48.

¹³⁷ Cf.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93. 그래함은 "다른 사람들이 종종 칼빈을 혁명 지도자로 말하지만, 16세기가 전체 서방 세계의 과도기에 처해 있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등점에 도달했을 때, 인간이 공동생활의 구조들이 너무 변해서 돌연히 그의 앞에 전개된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만이 혁명이 발생한다'라는 말로 칼빈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했다.

은 결코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개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과도기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시대적인 부름에 부응해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초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Abstract〉

John Calvin and Yong-gi Kim
on Social Service

Byung-Hwan Kim

(Systematic Theology, BaekSeok University)

This essay is written to make an alternative plan to solve the critical problems with which many Korean churches are recently confronted at their quantitative, qualitative growth. First of all, I tried to apply to Korean churches remarkable things of Calvin's social service activity which had caused to change the whole city of Geneva through his pastoral activity. Needless to say, there are a lot of Christian organizations for social service in Korea. But I want to induce an alternative plan for the reformation of the Korean churche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social service activity of Presbyterian Kim Yong-gi at Canaan farmer's school with that of Calvin at Geneva. The first question that this essay tries to answer is what idea Calvin had in the social service activity in Geneva. Next is to find out what practical and concrete plan and project Calvin had in social service activity. And it is handled how far Calvin's reformation ideas for social service made an influence to civil life in Geneva and how they can be applied to Korean churches.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social service activity of Calvin in Geneva and that of Canaan farmer's school which is developing active social service in Korea as a model

of the true christian community. And it aims at the establishment of the goal that korean churches intend to in the areas of the society. I hope it causes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 communities lead the change of the consciousness of the korean society and lay the foundation of the change of korean society and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through the gospel.

* **Key word:** Kim Yong-gi, Canaan farmer's school, John Calvin, korean alternative, social service activity, growth of church.

〈참고문헌〉

Calvin, John.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ited by Guillaume Baum, Eduard Cunitz, and Eduard Reuss. 59 Vols. Brunswick, 1863-1900.

. *Calvin : Commentaries*. Edited by Joseph Haroutunian with _____ Louise P. Smith. Vol. XXIII of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Edited by John Baillie, John T. McNeill, and Henry P. Van Duse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8.

. *Calvin's Commentaries*. Edited by D. W. Torrance and T. _____ F. Torrance. 12 Vols.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1959-1972.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Henry

- _____ Beveridge. 2 Vols.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 .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I-IV. Edited by Dr Jules Bonnet, English Translation of I and II . Edinburgh 1835-37. Vols. _____ III and IV. Philadelphia, 1858.
- . *Register of the Commentary of Pastors in Geneva at the _____ time of Calvin* (Containing the Ecclesiastical Ordinances of 1541).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by Philip E. Hushes, Grand Rapids 1966.
- . *Calvin's Introduction to his Commentary on the Book of _____ Psalms*. Calvin Translation Society Edition. Edinburgh, 1961.
- Register of the Commentary of Pastors in Geneva at the time of Calvin* (containing the Ecclesiastical Ordinances of 1541).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by Philip E. Hughes. Grand Rapids, 1966.
- Supplementa calviniana, Sermons inédits*. 6 Vols. Ed. de l'Issue Corporis Presbyterianorum Universall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36-1981.
- Bouwtsma, William J. *John Calvin :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Graham, W. Fred.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Atlanta: John Knox Press, 1971.
- Roget, Amédée. *Histoire du peuple de Genève depuis la rèforme jusqu'à l'escalade*. 7 Vols. Geneva: J. Jullien, 1870-1883.
- Usher, Abbott Payson. *History of Mechanical Inventions*. Boston: Beacon Press, 1959.
- Wallace, Ronald S.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Books House, 1990.

- 베버, 오토.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옮김. 서울: 도서출판 이레, 2001.
- 스토페르, R. 『남편, 아버지, 친구, 목회자로서의 '인간 칼빈'』. 박건택. 서울: 도서출판엠마오, 1989.
- 파커, T. H. L.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9.
-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제, 2000.
- 김병환. 『사회복지사업 측면에서 본 칼빈연구』. 서울: 도서출판 목양. 2010.
- 김안호·양철호·류종훈 공저.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2.
-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 『나의 한길 60년』. 서울: 규장문화사, 1995, 7쇄.
- 김재성. “생애 : 칼빈의 전설? 그의 추적자들과 연구과제”. 『최근의 칼빈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김종일. 『가나안복민운동』. 경기: 제1가나안농군학교, 1990.
- 김평일. 『이렇게 살면 모두가 산다』. 서울: 국민일보, 1998. 초판 3쇄.
- .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서울: 고려원, 1997. 초판 9쇄.
- 이오갑. “인간론”.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칼빈, J. 『기독교강요』(上), (中), (下). 김종흡 외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8.
- 표갑수. 『사회복지개론』. 서울: 나남출판, 2002.